통일화보

주체112(2023)년
(3 — 4월)
2호

특집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한 태양의 미소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올해 농사차비로 온 나라가 들끓는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통일애국투사

통일화보

주체112(2023)년 2호 (3－4월)

| 특집 |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한 태양의 미소 2

| 절세의 위인 |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끊임없는 발전상을 보여주는 위력적실체 또다시 출현 38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리상이 응축된 인민의 새 거리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46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사이의 체육경기를 관람하시였다 52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시였다 54

| 소 식 |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 56

식수절을 맞으며 기념식수 진행 60

주체112(2023)년 새 학년도 시작, 개학모임 진행 62

| 공화국의 현실 |

올해 농사차비로 온 나라가 들끓는다 66

생산정상화의 동음 울려가는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 70

누구나 선호하는 삼일포TV 74

과학기술로 농업발전을 강력히 선도해갈 일념 안고 76

인재육성의 토대를 마련해가는 연구사들 78

고상하고 아름다운 우리 식의 발레무용으로 82

가정부인롱구선수들 86

| 인물소개 |

공화국의 품에서 영생하는 삶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통일애국투사 90

가요 《나는 알았네》를 창작한 의용군출신의 작곡가 98

| 조선의 명산 |

칠보산 100

| 료리소개 |

특색있는 명료리 섭조개구이 106

| 슬기로운 우리 민족 |

력사유적 석왕사 116

| 분노의 웨침 |

《전쟁날가 불안하다!》, 《전쟁부르는 합동군사연습 당장 중단하라!》 108

《친미, 친일굴욕외교로 대결과 전쟁을 택한 윤석열을 심판하라!》 112

■ 표지: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성대히 진행된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 뒤표지: 모란봉의 봄

■ 편 집: 리대성, 정철성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한 태양의 미소

—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11돐에 즈음하여 —

- 노래 《해빛같은 미소 그립습니다》중에서 -

: :

수령님을 못잊습니다
천만년세월 흐른대도
따뜻한 그 품 그립습니다
해빛같은 미소 그립습니다
조선을 빛내이신 어버이수령님
우리에게 혁명정신 심어주시고

수령님을 못잊습니다
천만년세월 흐른대도
따뜻한 그 품 그립습니다
해빛같은 미소 그립습니다
이 행복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
우리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함주군 조양리를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성진제강소(당시)를 찾으시여 혁신자들의 로력적성과를 고무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황해제철소(당시) 로동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검덕광산(당시)의 녀성로동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위인일화

주체52(1963)년 2월 2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포유리공장(당시)을 찾으시였다.

한 취조공이 50kg이 넘는 1 300℃의 유리덩어리를 긴 쇠관대에 찍어물고 이리저리 굴리며 입김을 불어넣는 작업모습을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 동무의 얼굴을 보오! 저 동무가 하는 일이야 말로 중로동중에서도 중로동이요.》라고 격하신 음성으로 교시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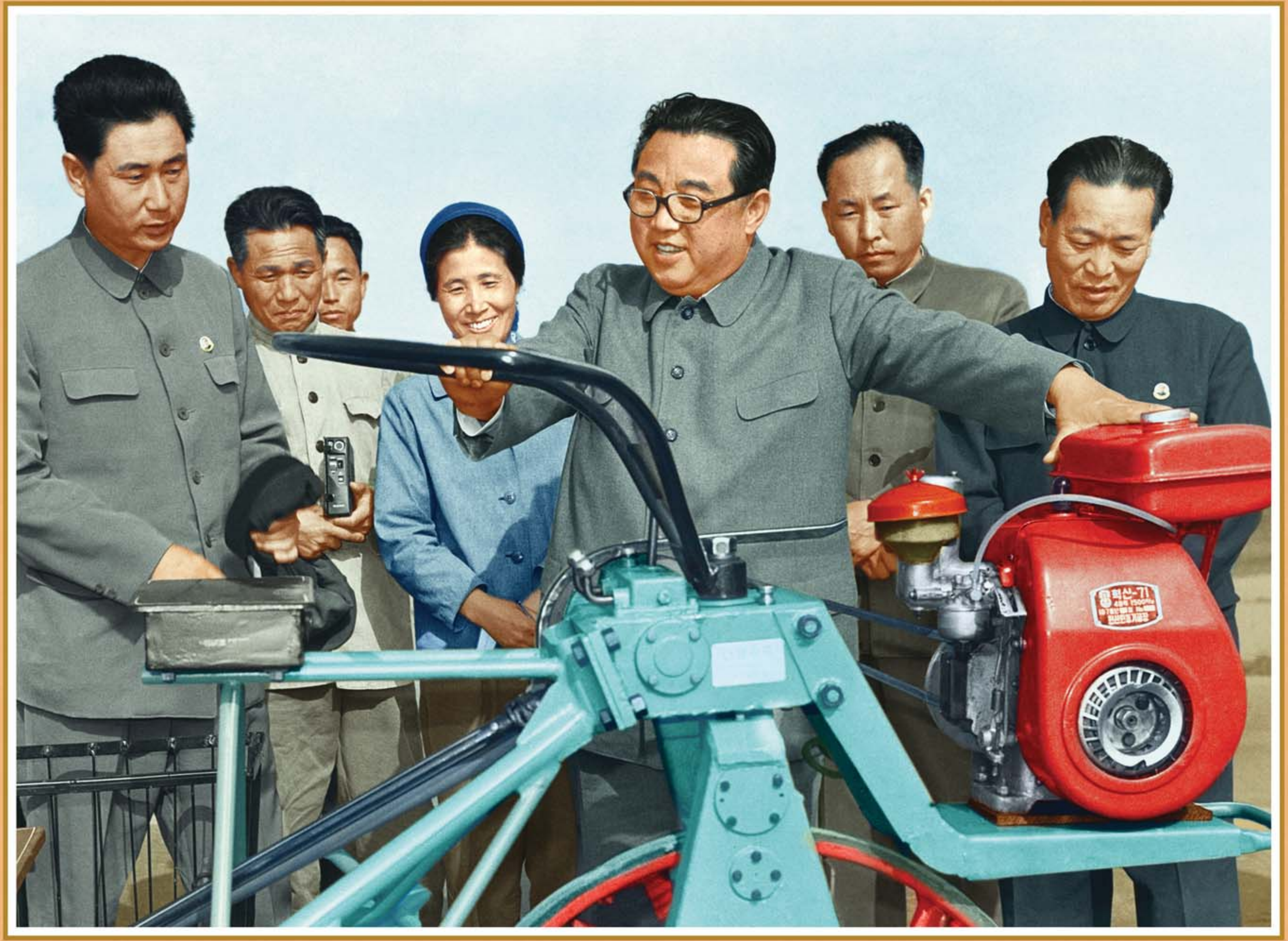
작업대에서 내려선 취조공을 만나주신 수령님께서는 그가 만든 제품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그런데 왜 기계화하지 않고 입으로 붑니까?… 기계화할수 없소?》라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취조공은 기계화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고 또 유리공업이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다 입으로 불어서 만들고있다고 솔직하게 말씀올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은 어떻든간에 우리는 기계화를 해야 하오. 이대로 둘수는 없소. 입으로 부는것도, 메여나르는것도 다 기계화하여야 하오!》라고 단호히 교시하시였다.

그후 취조작업을 기계화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공장을 다시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열로동에서 벗어나 흥겹게 일하는 로동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보시오, 얼마나 좋소! 저렇게 기계로 바람을 불어넣으니 얼마나 좋소! 이제야 내 마음이 좀 놓이오. …동무들이 큰일을 했소.》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시였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당시) 포전에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모내는기계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위인일화

주체63(1974)년 5월 어느날 황해남도 재령군의 한 농장포전길을 지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장원들이 어둠속에서 일하는것을 보시고 차를 멈춰세우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운전수동무! 차를 돌려세우시오. 저 동무들이 날이 어두웠는데도 아직 모를 내고있소. 불빛을 비쳐줍시다.》라고 하시며 농장원들이 모내기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논판에서 나온 농장원들의 흙묻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나이는 몇살이고 일은 힘들지는 않는가고 세심히 물어주시였다.

기계로 모를 내니 농민들이 너무 좋아 모두 춤을 춘다는 한 농장원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래 농민들이 좋아서 춤을 춘단 말이지.…》라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여러 차례나 몸가까이에서 만나뵈온 나무리벌농민들이였지만 이날처럼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는 수령님을 뵈온적이 없는듯싶었다.

대안전기공장(당시) 합숙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자강도 장강군 향하리 농민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당시)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청소년학생들의 설맞이모임에 참석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위인일화

주체50(1961)년 6월 6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소년단창립 15돐기념 전국소년단련합단체대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휴계실에서 대회주석단에 오를 각 도 소년단대표들을 만나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이름과 학교, 앞날의 희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모범분단운동은 잘하는가,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뒤떨어진 동무는 없는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따뜻이 물어주시였다.

잠시후 시간이 되였으니 대회를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며 주석단으로 향하시던 수령님께서는 《오늘은 소년단원들의 명절이니 너희들이 앞서야지.》라고 하시며 대표들의 등을 떠밀어주시였다.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주석단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소년단원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여 답례를 보내주시였다.

《나는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자라는것을 볼 때마다 더없이 기쁘고 힘이 솟습니다.》라고 교시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안광에는 해빛처럼 밝은 미소가 어리여 있었다.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온 민족과 전 세계가 우러러받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이다.

김 정 은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고 화력습격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9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화성포병부대를 현지지도하신 후 화력습격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의 전투정치훈련실태와 군부대의 중요작전임무행동질서 및 무기체계운용능력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의 중요요소들과 직속구분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전쟁준비실태와 군인들의 군무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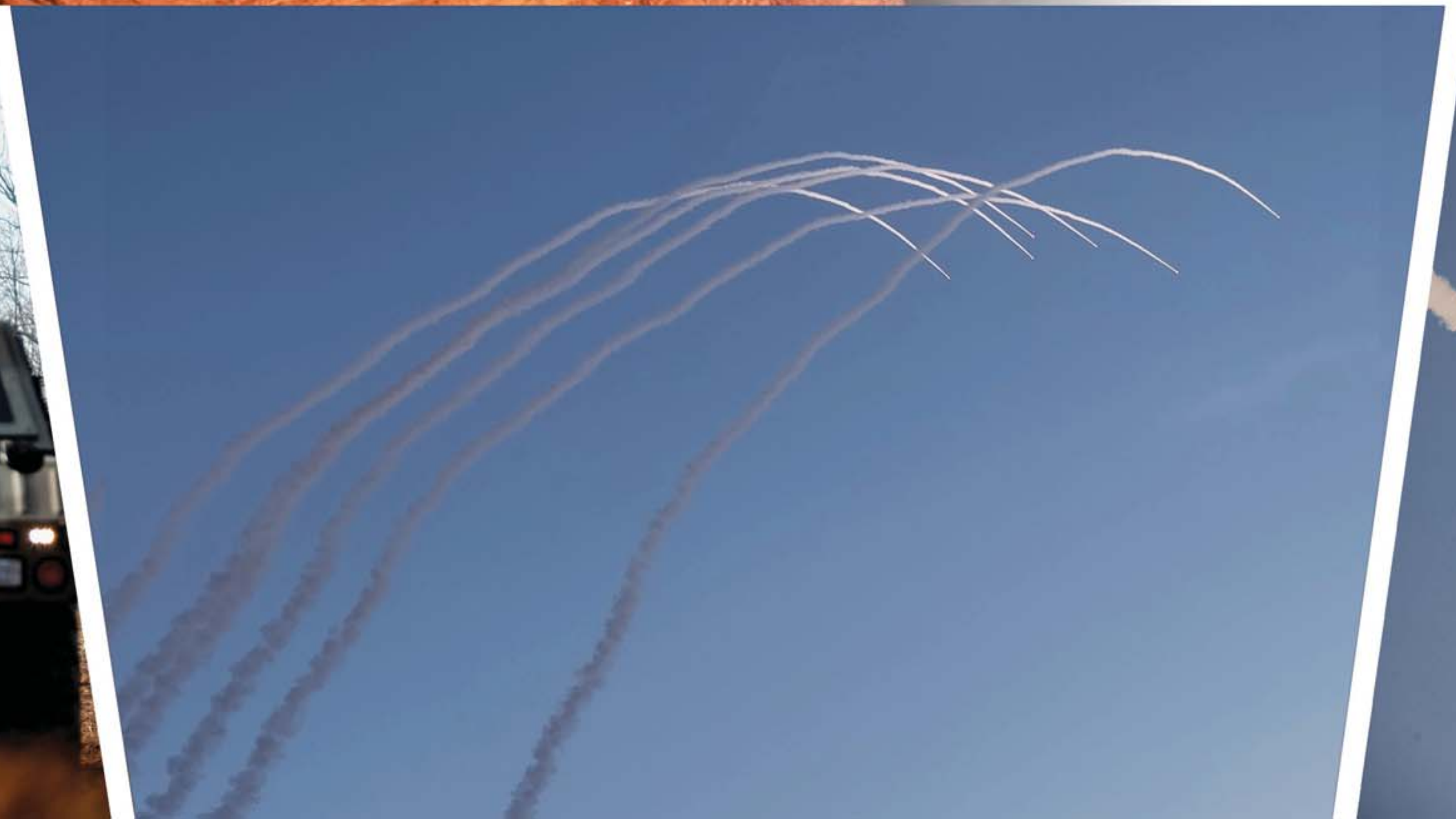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서부전선방면의 적작전비행장을 담당하고있는 군부대관하 제8화력습격중대의 실전대응태세를 판정검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훈련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화성포병들이 실전에 대응할수 있게 위력적으로 엄격히 준비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검열훈련결과는 군대는 언제든지 싸울수 있게 준비되여야 하고 말보다 실제적인 행동에 책임적이여야 한다는 중대한 사명감과 명백하고 실천적이며 드팀없는 우리의 군사행동의지를 똑똑히 보여준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최근 들어 더욱더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적들의 각종 전쟁준비책동에 항상 각성하며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충돌위험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 부대가 맡고있는 작전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피력하시면서 관하 화력습격구분대들이 각이한 정황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실전가상훈련들을 다각적으로 부단히 강화해나감으로써 첫째로 전쟁을 억제하고 둘째로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2대임무수행에서 최대의 완벽을 기할수 있게 엄격히 준비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 진행

온 나라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가 제시한 결정관철에 총매진하고있는 시기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변혁적발전을 위한 주요전역들에 인민군대를 파견하여 전국적범위에서 강위력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중요정치군사활동방향들과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확대회의는 우리 당이 전망적으로 설계하고 목적지향적인 투쟁으로 인도하고있는 농촌진흥과 지방건설, 사회주의대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민군대의 활동방향과 구체적인 임무를 확정하였으며 그 집행과 관련한 조직기구적대책과 병력리용방안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또한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도발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닫고있는 현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조치들이 토의결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확대회의에서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놓인 주객관적형세를 개괄분석하시면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완강히 극복하며 전면적국가부흥의 거창한 위업을 추진해나가는 오늘의 창조대전은 당의 웅대한 실천강령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적역할을 해온 우리 인민군대가 더욱 전진적이고 더욱 격동적인 투쟁으로 온 사회를 선도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기대하고 그려보는 리상을 눈앞의 현실로 안겨주기 위한 사회주의농촌건설과 경제발전의 성스러운 전구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마땅히 투쟁의 주체가 되고 본보기가 되여 제시된 단계별목표들을 무조건 결사관철함으로써 한해 또 한해 온 나라가 반기는 부흥의 실체를 반드시 안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문명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부강조국건설의 맨 앞장에 인민군대를 또다시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을 격동속에 받아안으며 전체 참가자들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관철에서 맡겨진 중대한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가부흥실현을 위한 웅대한 변혁의 목표들을 드팀없이 점령해갈 철석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초강력대응태세에 대한 시위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발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괴뢰역도들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지역에 가장 불안정한 안전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형세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3월 16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발사훈련을 단행하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미싸일부대의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훈련은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의 기동적이며 경상적인 가동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 045㎞까지 상승하며 거리 1, 000.2㎞를 4, 151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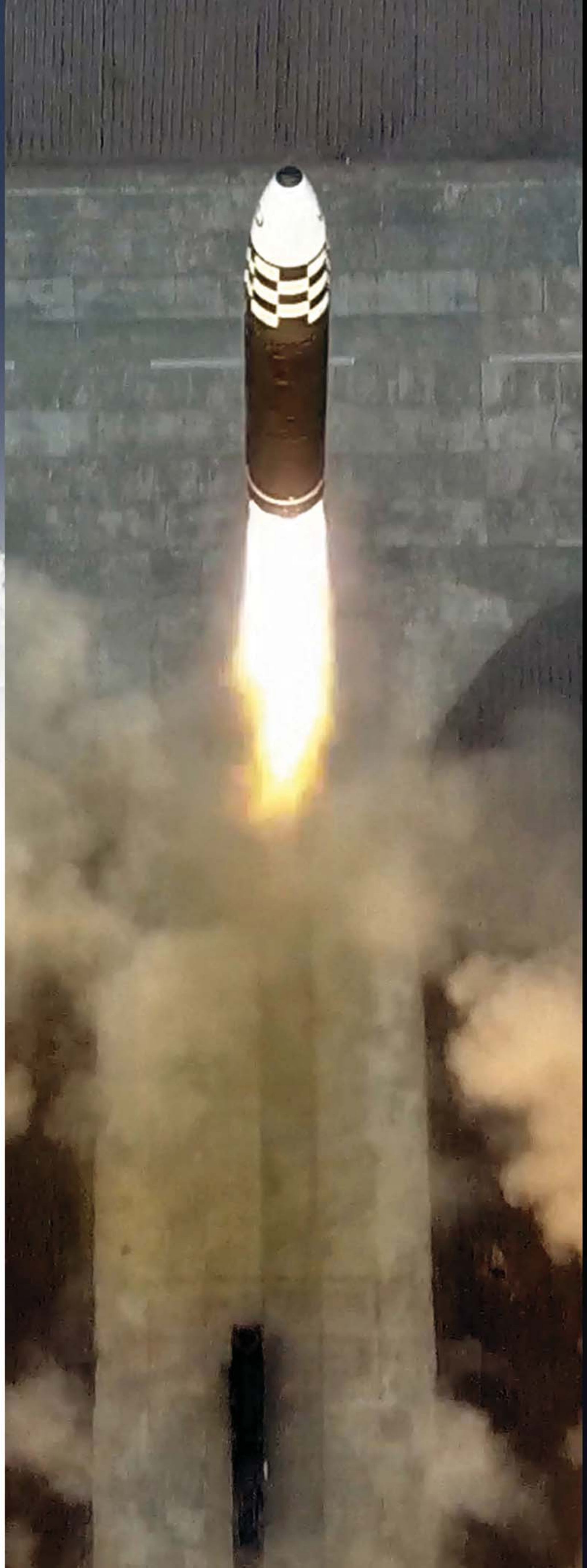
발사훈련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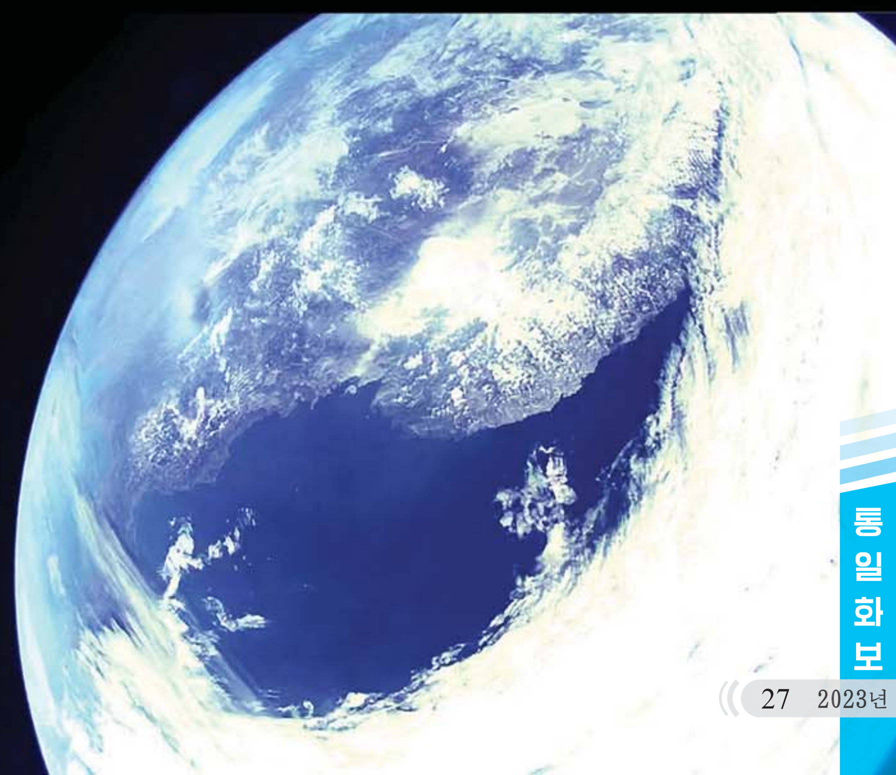
발사훈련을 통하여 대륙간탄도미싸일부대의 림전태세와 공화국전략무력의 비상한 전투성이 확인되고 신뢰성이 엄격히 검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발사훈련을 참관하신 후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더더욱 고도화되고있는 우리 핵전략무력의 가동체계들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다시한번 뚜렷이 립증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망적인 국가의 안전환경과 적들의 위협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활동방향과 로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누구도 되돌릴수 없는 핵전쟁억제력강화로써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실제 전쟁을 억제하며 우리 인민의 평화적인 삶과 사회주의건설투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이라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엄숙한 천명을 다시금 상기하시면서 그 어떤 무력충돌과 전쟁에도 림할수 있도록 전략무력의 신속대응태세를 엄격히 유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진행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해당 부대들을 전술핵공격임무수행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종합전술훈련이 3월 18일과 19일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은 핵타격지휘체계관리연습과 핵반격태세에로 이행하는 실기훈련, 모의핵전투부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싸일발사훈련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3월 18일 전술핵무력에 대한 지휘 및 관리통제운용체계의 믿음성을 다각적으로 재검열하고 여러가지 가상적인 긴급정황속에서 핵공격명령하달 및 접수절차의 정확성과 핵무기취급질서, 각이한 핵공격방안에 따르는 가동절차를 엄격한 안전성견지에서 검열하면서 핵공격에로 신속히 넘어가기 위한 행동질서와 전투조법들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 여러차 반복적으로 진행되였다.

19일 오전 전술핵공격을 모의한 탄도미싸일발사훈련이 진행되였다.

발사훈련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종합전술훈련을 통하여 중요화력습격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구분대들의 실전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모든 구분대들이 커다란 자신심에 충만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핵전투무력이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쟁취의 중대한 사명을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정확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정확히 가동할수 있는 핵공격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사명을 다할수 있게 되며 우리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평화로운 삶과 미래,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적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이 날로 가중되고있는 오늘의 형세는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핵무력건설의 중요방향과 핵무력의 전쟁준비에서 나서는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조직지도한데 이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또 다른 군사적공격능력의 시위로써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자위적핵력량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훈련들을 지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요군사활동들을 지도하시였다.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였다.

지난 3월 21일 함경남도 리원군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조선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하여 3월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전투부가 수중폭발하였다.

시험결과 핵무인수중공격정의 모든 전술기술적제원과 항행기술적지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였으며 치명적인 타격능력을 완벽하게 확증하였다.

3월 22일 전략순항미싸일부대들을 전술핵공격임무수행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발사훈련이 진행되였다.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작도동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싸일 《화살-1》형 2기와 《화살-2》형 2기는 조선동해에 설정된 1,500km와 1,800km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비행궤도를 각각 7,557~7,567s와 9,118~9,129s간 비행하여 목표를 명중타격하였다.

발사훈련에서 순항미싸일의 초저고도비행시험과 변칙적인 고도조절 및 회피비행능력을 판정하는 시험도 진행하였다.

또한 기종별로 각각 1발씩 설정고도 600m에서의 공중폭발타격방식을 적용하면서 핵폭발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믿음성을 다시한번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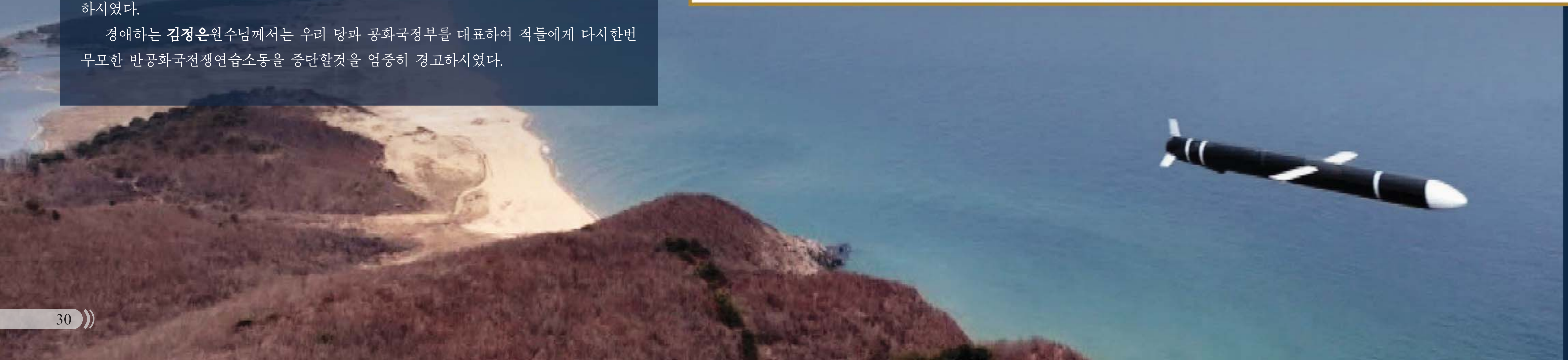
중요무기시험과 발사훈련들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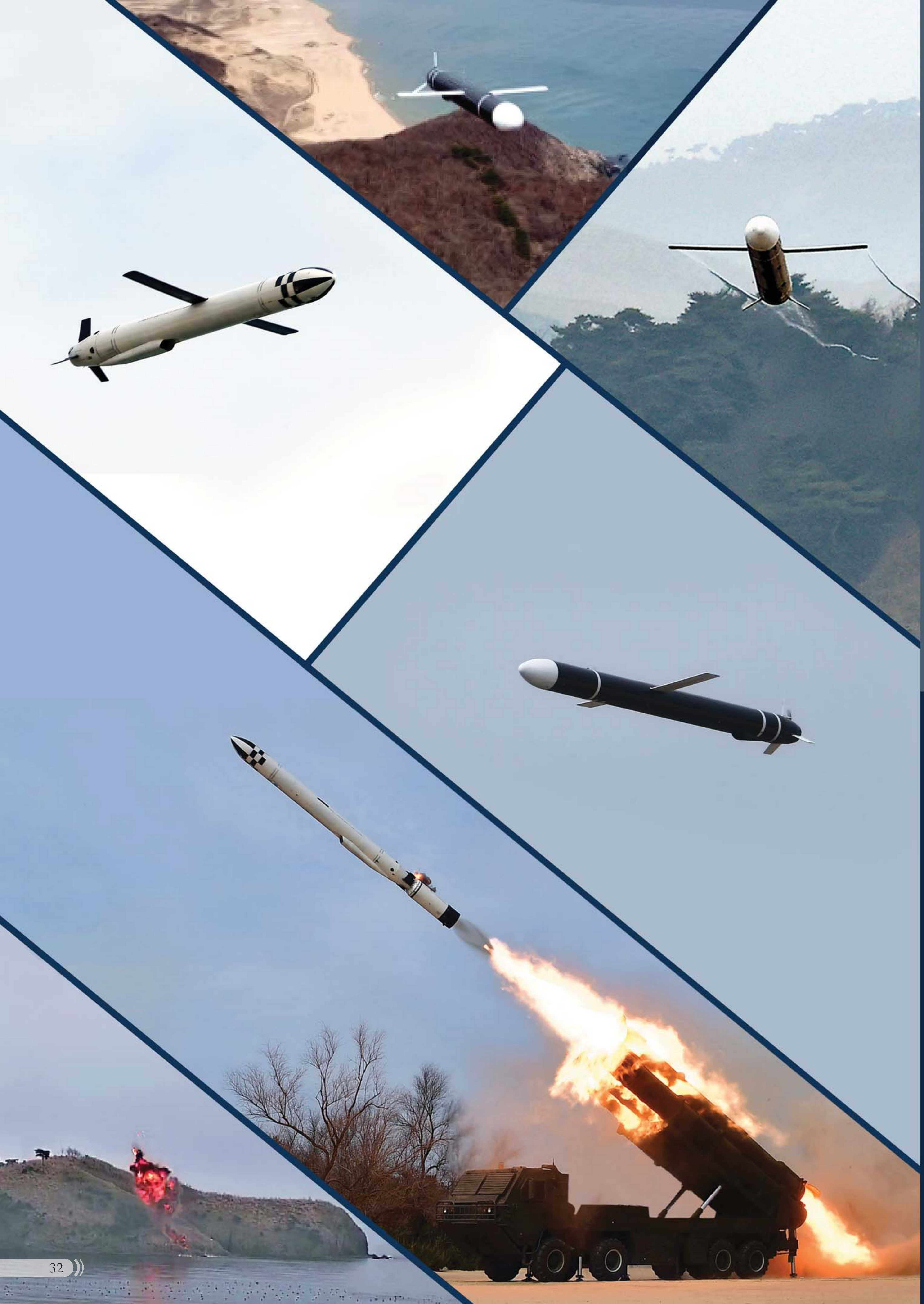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이 가증될수록 우리는 끝까지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침략기도를 사사건건 무력화시키고 우리 인민의 평화로운 삶과 미래,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믿음직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당면한 전투적과업들과 항구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철저한 전쟁억제력의 압도적시위로써 미제와 괴뢰들의 선택에 절망을 안기고 지역에서 군사동맹강화와 전쟁연습확대를 통해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으며 더 큰 위협에 다가서게 된다는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적들에게 다시한번 무모한 반공화국전쟁연습소동을 중단할것을 엄중히 경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핵무기발전방향과 전략적 방침에 따라 공화국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근년간의 사업정형과 생산실태에 대하여 **김정은**원수님께 보고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핵무기적용수단과 작전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르는 새로운 전술핵무기들의 기술적제원 및 구조작용 특성, 각이한 무기체계들과의 호환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며 최근에 진행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에서 그 과학성과 믿음성, 안전성이 엄격히 검증된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의 정보화기술상태를 료해하시였다.

또한 준비된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들을 검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핵무기연구소가 다각적인 작전공간에서 각이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통합운용할데 대한 당중앙의 전략적 구상과 기도에 맞게 우리의 핵무력을 임의의 핵긴급정황에도 대처할수 있는 믿음직한 력량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한 진함없는 노력과 이룩해놓은 커다란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참으로 간고하고도 머나먼 핵보유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왔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억제력을 비축한 우리 핵무력이 상대할 적은 그 어떤 국가나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전쟁과 핵참화 그 자체라고, 우리 당의 핵력량증강로선은 철두철미 국가의 만년안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수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재삼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다져나가는 사업에서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하며 핵력량의 끊임없는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여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것이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우세한 핵무력이 공세적인 태세를 갖출 때라야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국권과 제도와 인민을 감히 건드릴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핵무기연구소와 원자력부문에서 핵무기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데 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무기급핵물질생산을 전망성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핵무기연구소와 원자력부문앞에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확대회의가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성원들과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의 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확대회의에서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의 침략적인 군사정책과 행위들이 위협적인 실체로 부상하고있는 현 조선반도안전상황의 엄중함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과 전쟁준비를 더욱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군사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의 침략전쟁준비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현정세를 심도있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우리의 군사적 선택을 더욱 명백히 하고 강력한 실천행동으로 이행할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엄격히 갖추는것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하였으며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행동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문제와 기구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날로 엄중해지고있는 조선반도안전 상황을 더욱 엄격히 통제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가속적으로 강화되고있는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선공격작전계획과 여러 전투문건들을 료해하시면서 군대의 전쟁수행능력을 부단히 갱신하고 완비하기 위한 군사적대책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밝히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확대회의에서 토의된 군사적대책들은 적들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립장을 더욱 선명히 하고 굳건한 방위력과 압도적인 공격력 제고를 위한 무력강화행정에서 또 한번의 큰걸음을 내짚은 사변적 계기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끊임없는 발전상을 보여주는 위력적실체 또다시 출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2023년 4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끊임없는 발전상을 보여주는 위력적실체가 자기의 출현을 세상에 알렸다.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첫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였다.

시험발사는 대출력고체연료다계단발동기들의 성능과 단분리기술, 각이한 기능성조종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의 군사적효용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과 령내비행중 다계단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방식으로, 2, 3계단은 고각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지연분리시동방식으로 미싸일의 최대속도를 제한하면서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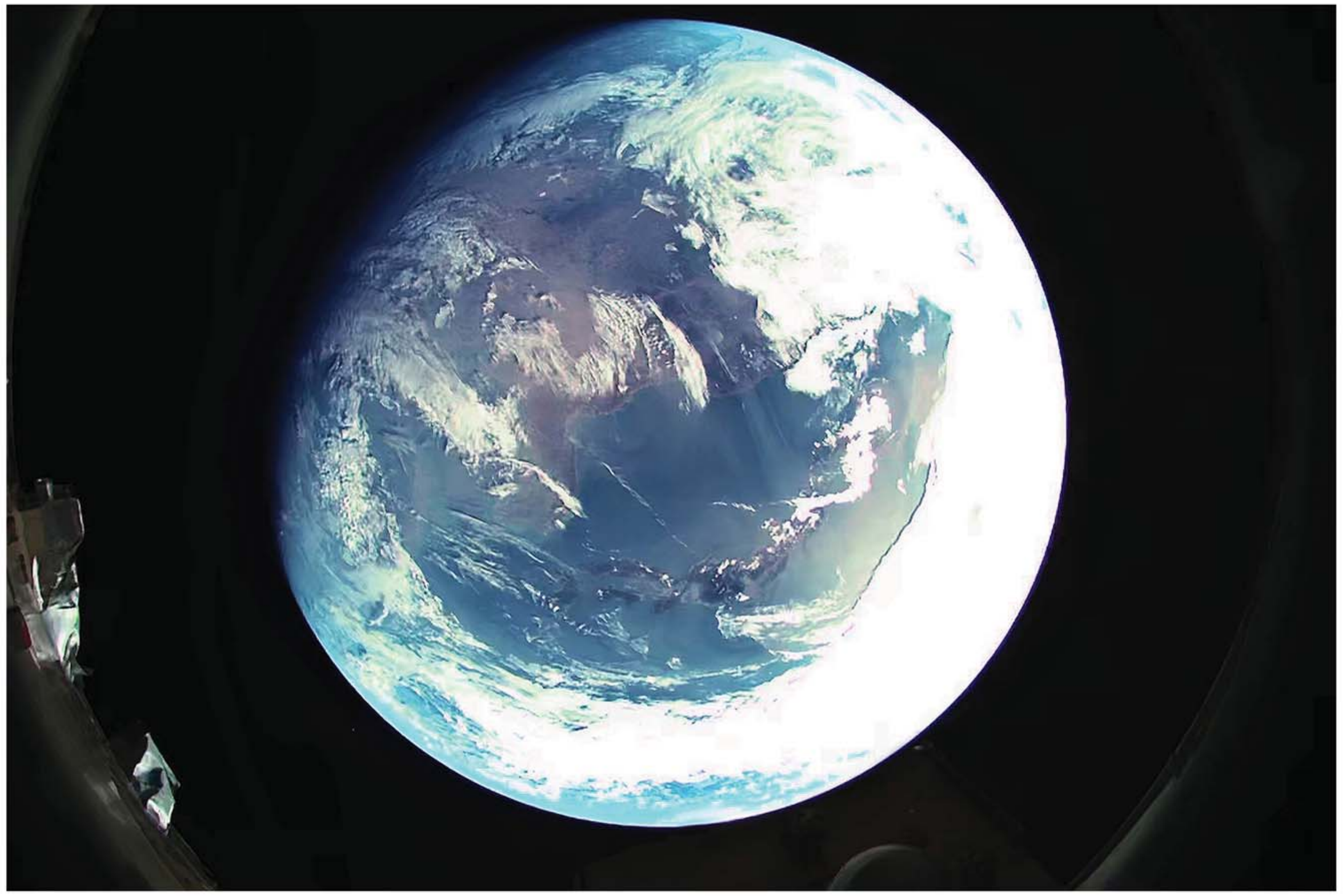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험발사현장에서 발사전 준비공정을 직접 지켜보시면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형전략무기시험발사를 승인하시자 장창하대장이 시험발사임무를 맡은 미싸일총국 제2붉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내리였다.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분리된 1계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앞 10㎞ 해상에, 2계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 해상에 안전하게 락탄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고질적인 침략적정책과 위협적인 군사적준동으로 조선반도의 환경을 위태하게 하고 우리 인민의 평화적인 삶과 사회주의건설투쟁을 방해하고있는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것이며 반드시 불가극복의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어 잘못된 저들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1계단분리
1계단분리
2계단분리
3계단분리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리상이 응축된 인민의 새 거리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인민의 환희를 분출시키며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4월 16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당과 국가의 최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시며 사회주의리상사회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걸출한 인민의 령도자께 드리는 최대의 영광과 흠모의 정을 담아 우렁찬 《만세!》의 합성과 환희의 축포가 또다시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뜻깊은 4월의 하늘가로 날아올라 화성지구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손저어 답례하시며 군민건설자들과 선경거리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을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눈부신 전변과 기적적성과들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용용한 전진과 필승불패성을 만방에 떨치시며 사랑하는 우리 인민이 만복을 누려갈 강국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르며 격정의 환호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사이의 체육경기를 관람하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사이의 체육경기 재시합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경기장이 들썩하게 희열에 넘쳤던 2월명절에 이어 4월의 봄명절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또다시 뜻깊은 체육문화행사를 하게 된 내각과 국방성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기장에 나오시자 전체 선수들과 관람자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화창한 봄하늘을 진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내각 성원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경기를 관람하였다.

국방성 지휘성원들과 각급 부대의 장병들, 군사교육단위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보았다.

먼저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간의 축구경기가 있었다.

열기띤 응원속에 량팀 선수들은 치렬한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득점수가 1 : 1로 비긴 가운데 11m 차기로 승부를 갈랐다.

관람자들모두가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는 국방성팀이 내각팀을 5 : 3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축구경기에 이어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사이의 바줄당기기경기가 진행되였다.

바줄당기기경기에서도 국방성팀이 내각팀을 2 : 0으로 이겼다.

시상식이 참가자들의 박수갈채속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4월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현지에서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의 지도간부들이 영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주과학연구원과 우주환경시험기지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나라의 우주산업을 전망적으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원대한 우주정복정책이 제시한 당면한 과학연구사업진행정형과 최근시기 우주과학연구부문에서 달성한 핵심기술개발 및 생산추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담보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는데서 우주산업의 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우주분야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제가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이하고도 방대한 전략장비들을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상시배치수준으로 전개하면서 남조선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전쟁화약고로 전변시키고있는 현 실태와 련합준비태세의 구실밑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위협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행동이 보다 로골화될수 있는 전망적우려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국방력발전 5대중점목표에 적대세력들의 군사적기도와 움직임을 상시장악하기 위한 우주정찰능력의 보유를 우리 국가의 방위력건설의 가장 중차대한 선결적과업으로 제시하였다고 상기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4월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안에 발사할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준비를 다그쳐 끝내며 앞으로 련속적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각계층 근로자들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만경대를 찾는 인민들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이 넘쳐흐르는 속에 공화국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평양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탄생 111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제8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제26차 태양절료리축전,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등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중앙과 지방의 이르는 곳마다에 다채로운 체육경기들과 예술공연들, 근로자, 청년학생들의 야회, 무도회가 펼쳐져 명절을 맞는 인민들에게 랑만과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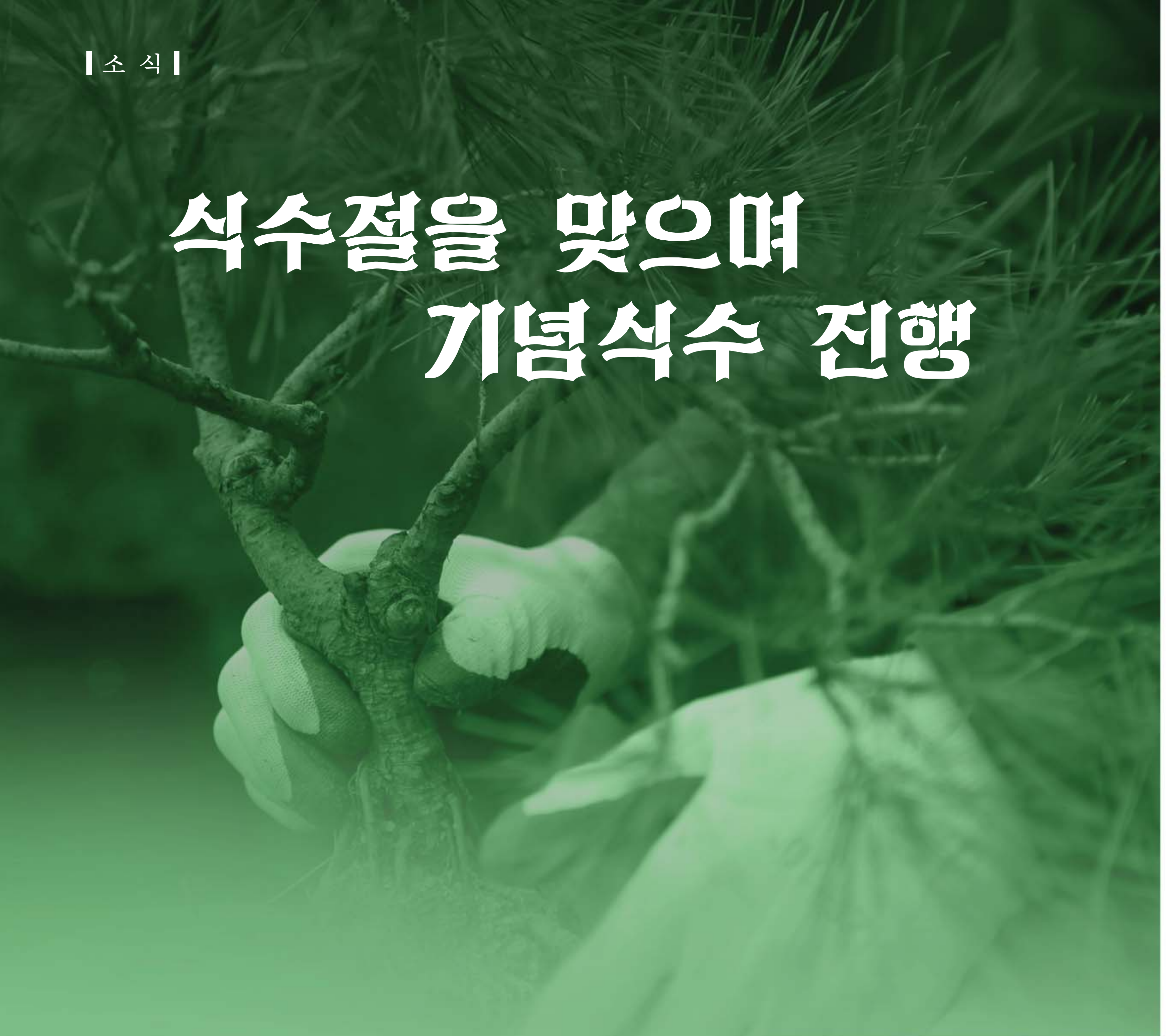
문수물놀이장, 인민야외빙상장을 비롯한 문화휴식터들과 옥류관, 신흥관 등 각지의 대중봉사단위들에서는 인민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글 본사기자

성황리에 진행된 제8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창덕학교에서 진행된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청년학생들의 야회



식수절을 맞으며 기념식수 진행

자기가 심는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마다에 열렬한 애국의 마음과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각계층 근로자들

공화국에서 식수절을 맞으며 3월 14일 기념식수가 진행되였다.

조국강산을 사회주의의 크나큰 락원으로, 만복의 무릉도원으로 가꾸어갈 불같은 열의를 안고 각지 근로자들이 기념식수에 참가하였다.

수도 평양의 각계층 근로자들은 중앙식물원 수목원과 화성산, 만경대혁명사적지, 당창건기념탑주변을 비롯하여 여러곳들에 나무들을 정성다해 심었다.

각지에서도 거리와 마을, 일터들을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단장하고 자기 고장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나무심기를 하였다.

산림조성사업의 병기창을 지켜선 긍지드높이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 강원도양묘장을 비롯한 각지 양묘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들을 원만히 생산함으로써 식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후대들의 행복과 번영의 터전을 마련해가는 숭고한 사업에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는 온 나라 인민의 애국의 열정은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의 노래와 더불어 내 조국에 푸르름을 더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주체112(2023)년 새 학년도 시작, 개학모임 진행

— 각지 학교들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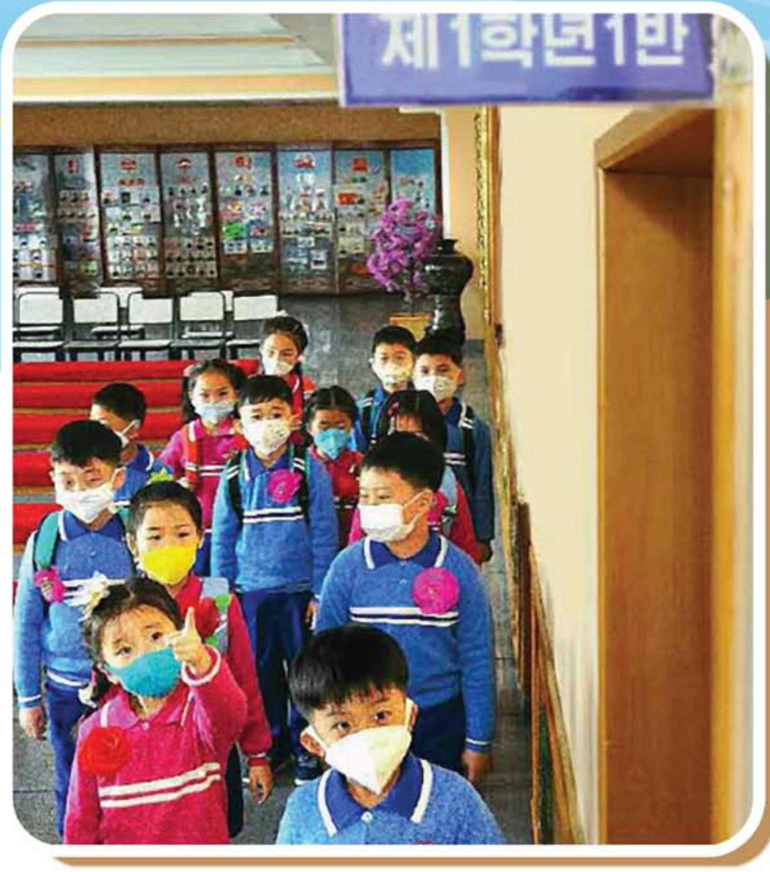
주체112(2023)년 새 학년도를 맞으며 4월 1일 각지 학교들에서 개학모임이 진행되였다.

개학모임에 앞서 국기게양식들이 진행되였다.

개학모임들에서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은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교육자의 본분을 다해나가며 강성조선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로 자라날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개학모임이후 새 학년도 첫 수업이 시작되였다.

글 본사기자



온 나라의 학교들에 차넘치는 학생들의 랑랑한 글소리, 노래소리는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향한 장엄한 전인민적대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내 조국에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을 안겨주었다.

올해 농사차비로 온 나라가 들끓는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에서 근본적변혁을 안아오기 위해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

농업전선의 병기창을 지켜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농촌에 보내줄 비료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농업과학원의 농업과학자들도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과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생육기일이 짧으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논벼, 봄밀, 강냉이를 비롯한 새 품종육종과 선진적인 재배기술을 연구도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본분을 자각하고 씨뿌리기, 모판온습도보장을 비롯한 봄철영농작업을 알뜰하고 깐지게 해나가고있다.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비상한 의지로 심장을 끓이는 온 나라 인민들의 깨끗한 애국의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져 각지의 농장벌은 지금 농사차비로 들끓고있다.

글 본사기자

생산정상화의 동음 울려가는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

지방공업발전의 본보기공장으로 일떠선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갖가지 식료품들과 소비품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식료공장에서는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첫 분기에도 매달 기초식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당과류, 음료를 비롯한 식료품들을 주민들에게 정상공급하고있다.

옷공장에서는 학생교복생산을 다그쳐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학생들의 새 교복공급을 보장하고 지금은 군내 인민들의 계절옷생산과 함께 주문봉사도 진행하고있다.

학습장생산에 힘을 넣어 학생들에게 질좋은 학습장을 공급한 종이공장에서는 군에서 살림집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맞게 장판종이, 도배종이생산을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일용품공장에서는 비누, 수지그릇, 목제품, 초물제품생산을 정상화하면서도 농촌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출입문들과 상수관, 급배수관생산에 힘을 넣어 련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생산정상화에 힘을 넣어 군내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는 일군들

김화군식료공장

김화군옷공장

김화군일용품공장

김화군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주원료는 군에 흔한 농산물들과 산림 자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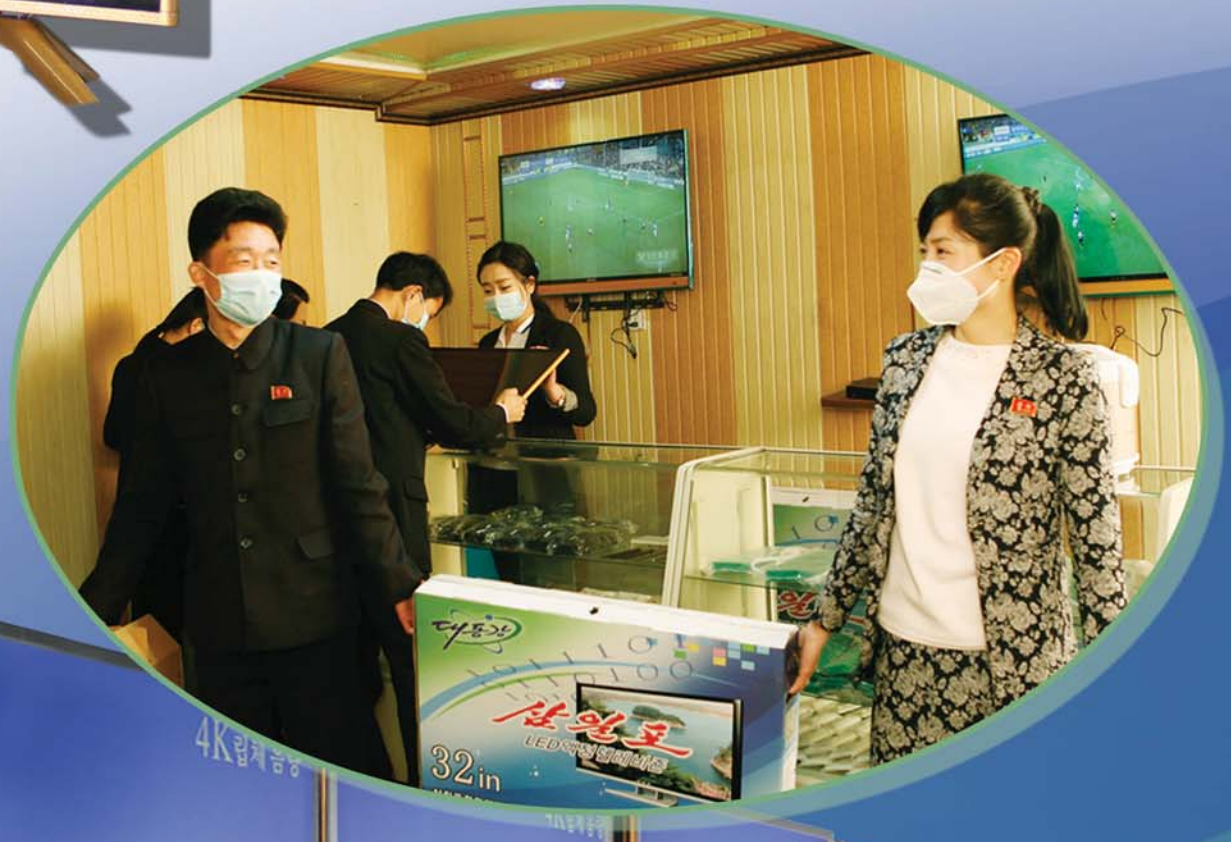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일부

누구나 선호하는 삼일포TV

— 삼일포전자제품공장 —

흐름식생산공정과 첨단설비들로 꾸려진 삼일포전자제품공장에서 성능이 좋은 새형의 수자식액정TV들이 계렬생산되고있다.

액정TV 《삼일포》는 발전하는 수자식TV제작기술과 성능들이 신속히 도입되여 구매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과학기술로 농업발전을 강력히 선도해갈 일념 안고

— 농업과학원 농업화학화연구소 —

농업과학원 농업화학화연구소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올해 농업생산장성을 과학기술로 안받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다.

연구소에서는 우리의 원료와 기술로 어떤 불리한 이상기후조건에서도 농작물의 생육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각종 비료와 농약들을 연구개발하고있다.

지난해 유기미량원소복합비료를 개발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효성비료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해성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방도들을 탐구하고있다.

자체의 생산기지에서 벼종자영양피복제, 천연유기질영양액비료, 현부제형혼합살조제를 비롯한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둘수 있는 농업과학기술제품들을 생산하는 한편 연구사들을 각지 농장들에 파견하여 영양랭상모재배용 벼모판종합영양제의 생산과 시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사업도 함께 밀고나가고있다.

이곳 연구소 과학자들의 탐구와 노력으로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이 확립되고 나라의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여가고있다.

사진 장창욱, 글 장윤정

연구소에서 만들어내고있는 농업과학기술제품들의 일부

어린이지능계발에 도움을 주는 다매체교육프로그람과 도서들

인재육성의 토대를 마련해가는 연구사들

— 평양교원대학 어린이지능계발기술교류소 —

평양교원대학 어린이지능계발기술교류소에서 어린이들의 지능계발과 관련한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법을 연구하여 전국의 유치원과 소학교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교류소에서는 현대교육발전추세로 되고있는 어린이지능계발과 로보트교육방법을 우리 식으로 연구도입한데 이어 지난 시기 계산을 위주로 하던 주산교육에 영상화를 적용한 기억력제고방법을 비롯한 가치있는 새 교수방법들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관찰력, 사고력, 상상력, 주의력, 기억력계발수법과 왼쪽뇌, 오른쪽뇌계발에 도움을 주는 다매체교육프로그람, 각종 도서, 참고서들도 내놓았다.

교류소에서는 수학, 영어, 과외교육방법연구실을 꾸려놓고 나이별, 학년별로 지능계발시험교육을 진행하면서 연구성과를 학령전어린이교육과 소학교교육에 일반화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사진 리철영, 글 윤금철

평양교원대학 어린이지능계발기술교류소에서는 자체로 연구개발한 가치있는 새로운 교수방법들과 다매체교육프로그람들, 각종 도서, 참고서들을 각지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학생들의 교육에 일반화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지능동산

고상하고 아름다운 우리 식의 발레무용으로

— 피바다가극단 —

예술영화 《월미도》의 한 장면을 소재로 한 발레쌍무 《그날의 약속》 중에서

지난 3월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된 음악무용종합공연에 새로 창작된 우리 식의 발레무용작품들이 올랐다.

예술영화 《월미도》의 한 장면을 소재로 한 발레쌍무 《그날의 약속》과 풍년든 밀보리포전에 날아예는 제비를 의인화한 발레무용 《이 강산 하도 좋아》, 백리청춘과원의 주인들을 형상한 발레무용 《사과따는 처녀들》.

조선무용의 우아하고 섬세한 률동과 발레무용의 기교를 결합한 특색있는 발레무용작품들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출연자들은 무용계에 첫발을 들여놓은지 얼마 되지 않는 20대의 신인배우들이지만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는 새로운 발레무용을 창작하기 위해 작품연구와 형상토론, 훈련을 거듭하며 긴장한 창작활동을 벌려 짧은 기간에 우리 식의 특색있는 발레무용작품들을 완성하여 내놓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진 장국진, 글 장윤정

방윤정(24살)
2.16예술상수상자

어려서부터 발레라고 하면 고전발레만을 생각하면서 자랐다. 이번에 우리 식의 특색있는 발레무용을 창작하는 과정에 나도 우리식 사회주의문명의 창조자라는 긍지와 보람을 느꼈고 이것을 더욱 빛내여나가는것이 바로 애국이라는 진리도 가슴에 새겨안게 되였다.

리일광(26살)

우리는 이번에 조선무용의 우아하고 섬세한 률동을 결합한 독특한 우리 식의 발레무용으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월미도를 피로써 지킨 리대훈중대장을 비롯한 영웅전사들이 지녔던 고결한 조국애와 용감성, 희생성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발레무용 《사과따는 처녀들》(우), 《이 강산 하도 좋아》(아래)

가정부인롱구선수들

— 평천구역식료품종합상점 —

얼마전 평천구역에서 단위별롱구대항경기가 구역주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되였다.

경기에서는 평천구역식료품종합상점녀자롱구팀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1등을 하였다.

째인 전술과 선수들간의 협동, 능란한 공몰기와 멋진 슛동작들…

(혹시 이전의 전문롱구선수들은 아닌지?)

경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품었다.

하지만 이들은 롱구와는 인연이 없는 식료품종합상점의 봉사원들이며 30~40대의 가정부인들이다.

이곳 봉사자들이 높은 롱구기술을 소유하게 된것은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온데 있다.

10여년전 평천구역에서 단위별롱구대항경기가 처음 열리였을 때부터 이들은 우승의 목표를 내세우고 훈련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첫걸음을 뗀 봉사원들은 체육의 날과 휴식일이면 롱구훈련을 맹렬히 벌리였다.

이악하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이들은 해마다 롱구대항경기에서 우승하였으며 모범체육단위의 영예도 지니였다.

일터에서는 친절한 봉사로 기쁨을 주고 경기장에서는 멋진 경기로 회열과 랑만을 안겨주는 가정부인롱구선수들은 구역주민들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사진 리철영, 글 윤금철

가정부인롱구선수들은 일터에서는 친절한 인민의 봉사자로 주민들의 존경을 받고 가정에서는 살뜰한 안해, 다심한 어머니로 사랑을 받고있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통일애국투사

리인모선생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3월 19일은 통일애국투사 리인모선생이 조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이다.

흘러온 지난 세월은 리인모선생이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인생의 최절정에서 영광과 행복의 삶을 누려온 나날이였으며 비록 우리곁을 떠났어도 신념과 의지의 강자, 통일애국투사로 영생의 삶을 누려온 날과 달들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승리하고 돌아온 리인모선생에게 영예의 **김일성**훈장, 조국통일상, 공화국2중영웅 등 최고의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리인모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시대에만 나올수 있는 신념과 의지의 전형이라고, 그의 신념의 한생을 온 나라가 따라배워야 한다고 은정어린 말씀을 주시였으며 선생의 생일 100돐때에는 그의 묘에 화환도 보내주시였다.

오늘도 빛나고있는 통일애국투사 리인모선생의 값높은 생은 태양의 품에 안긴 전사의 삶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주고있다.

글 윤금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보금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는 리인모선생

혁명의 성산 백두산정에 오른 리인모선생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 삶의 희열을 되찾은 리인모선생

가족들과 함께 여든돐생일을 맞는 리인모선생

《신념과 의지의 찬가》중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리인모선생이 올린 헌시 -

그것은 김정일, 당신이 주신것입니다

죽어도 못버릴 나의 신념

제 어찌 신념의 화신이겠습니까

저를 신념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인모선생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화환

평양의 통일거리에 세워진 리인모선생의 반신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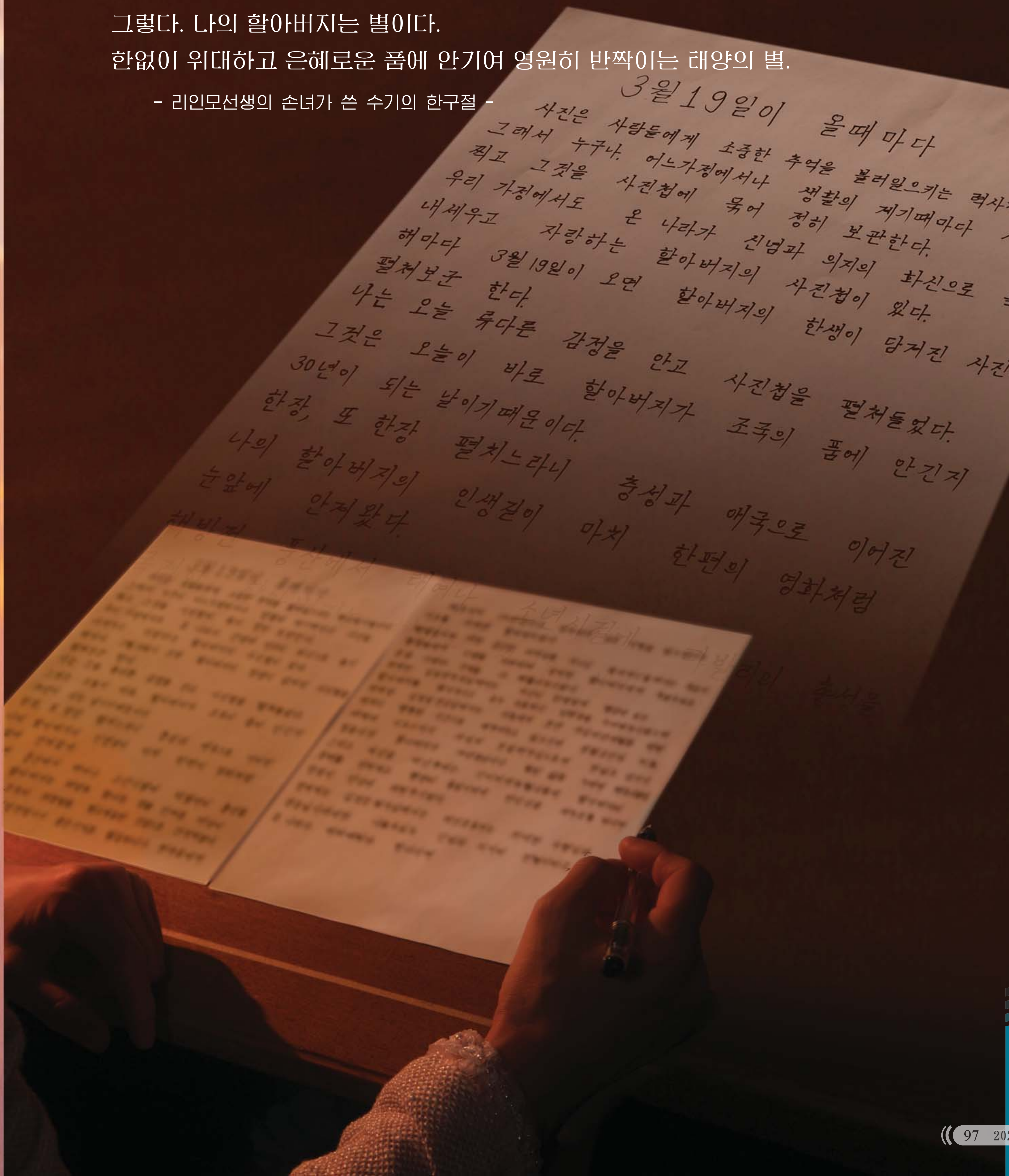
나는 가끔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잃었던 인생의 모든것을 되찾고 행복과 영광의 최절정에 높이 올라 죽어서도 값높은 삶을 빛내이는 나의 할아버지를 저 하늘의 별에 비기군 한다.

별, 밤하늘의 저 별빛은 꺼지지도 가리워지지도 않는다.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며 그 빛은 영원하다.

그렇다. 나의 할아버지는 별이다.

한없이 위대하고 은혜로운 품에 안기여 영원히 반짝이는 태양의 별.

- 리인모선생의 손녀가 쓴 수기의 한구절 -



가요 《나는 알았네》를 창작한 의용군출신의 작곡가

— 전 조선영화음악단 작곡가 라국선생 —

라국선생은 가요 《나는 알았네》를 비롯한 많은 명곡들을 창작한 재능있는 작곡가였다.

해방후 남조선에서 고학생활을 하며 고달픈 생을 이어가던 그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용약 의용군에 탄원입대하였다.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던 그는 조선인민군협주단(당시)에서 배우로 생활하였으며 전후 작곡가로 성장하여 창작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이후 영화음악작곡가로 있으면서 창작한 가요들중에서 예술영화 《월미도》의 주제가 《나는 알았네》는 어머니조국에 대한 숭고한 감정을 특색있는 음악형상으로 깊이있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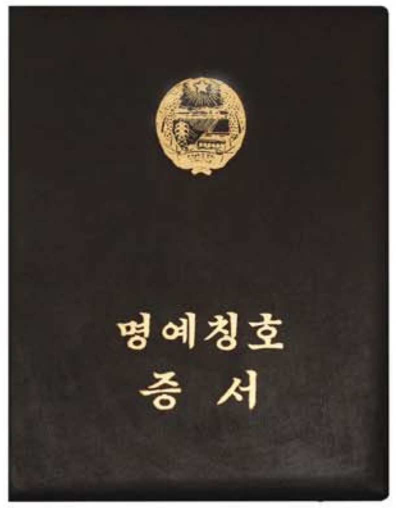
그는 이밖에도 노래 《조국의 바다지켜 영생하리라》, 《전사의 노래》, 《아 동지여》 등 수십편의 영화주제가들을 시대의 명곡으로 훌륭히 창작하였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라국선생은 오늘도 관록있는 작곡가, 의용군출신의 작곡가로 만사람의 기억속에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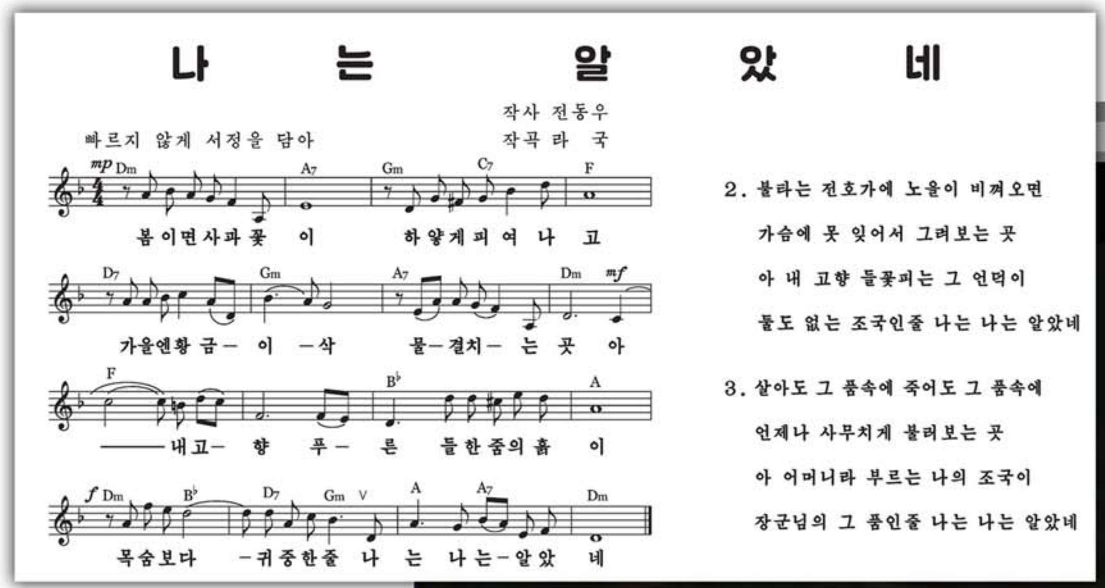
사진 장창묵, 글 장윤정

창작활동을 벌리던 때의 라국선생

라국선생이 수여받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표창장과 명예칭호증서



예술영화《월미도》의 주제가 《나는 알았네》와 영화의 한 장면

라국선생은 창작활동을 벌리던 나날에 노래 《나는 알았네》를 비롯한 50여곡의 가요들을 작곡하였다.

라국선생의 자손들

조선의 명산

칠보산

거대한 산체를 동해의 푸른 물에 억세게 박고 백두산을 향해 억만메부리를 드러내며 일만경치를 한껏 자랑하는 조선의 명산 칠보산.

칠보산은 산릉, 골짜기, 바다에 따라 여러가지 특징적인 경관을 이루고있는데 그 특징별로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로 나눈다.

하늘높이 치솟은 기기묘묘한 산봉우리들이며 갖가지 나무와 꽃들, 산을 붉게 물들이는 가을의 단풍 등으로 절경을 이룬 내칠보, 수려한 나무숲의 그늘과 그밑으로 수정같이 맑은 시내물이 흘러 아름다운 폭포와 푸른 담소를 이루는 외칠보의 이채로운 풍경, 동해의 물결이 그대로 파도가 되여 밀려와 기묘하게 생긴 바위에 부딪쳐 은구슬로 부서지는 모양과 깎아지른듯한 벼랑이 조화를 이룬 해칠보의 경치는 참으로 희한하다.

글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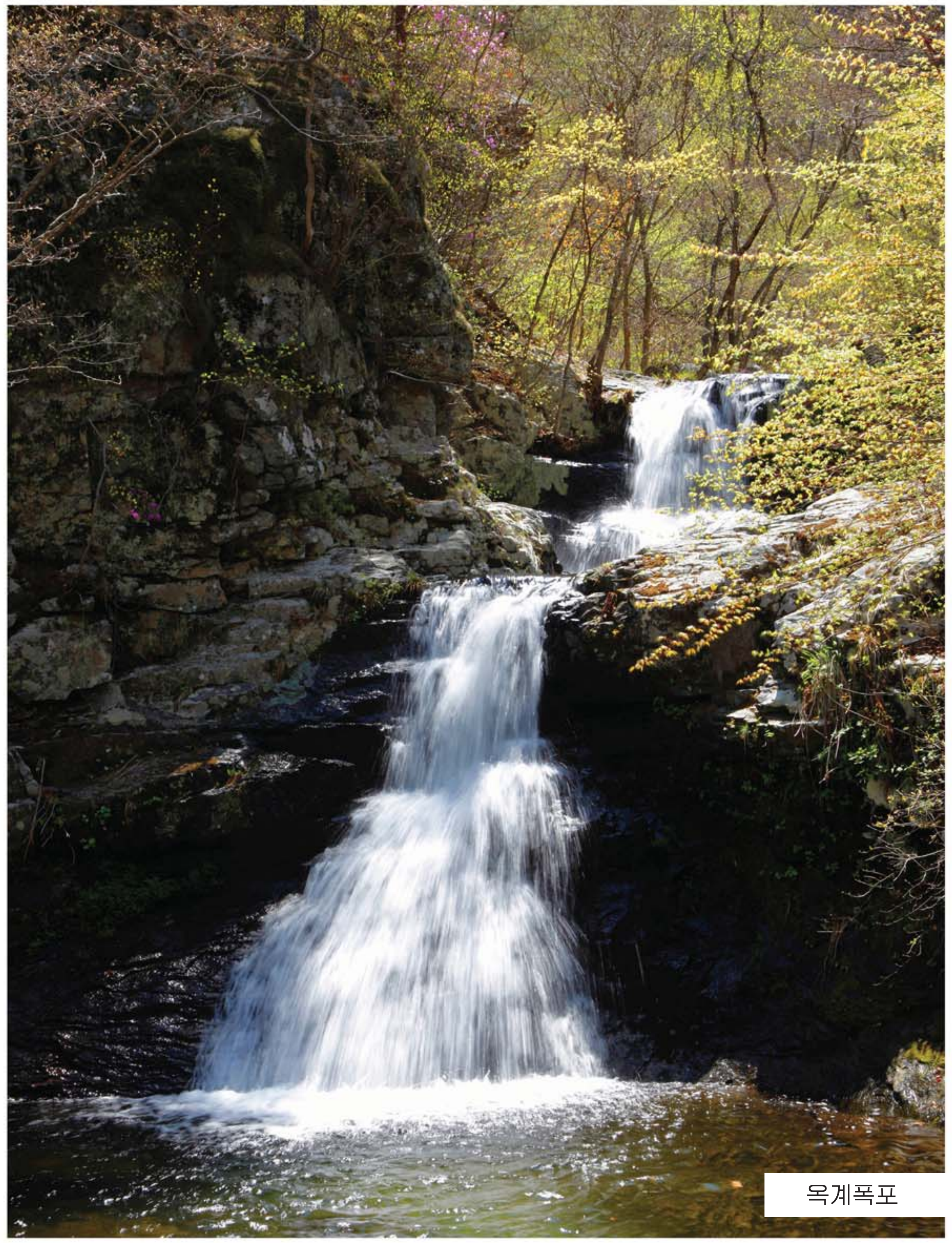
조선의 명산

칠보산

내칠보

해칠보

개심사


옥계폭포

조선의 명산

칠보산

부부바위

피아노바위

농부바위

특색있는 명료리

섭조개구이

살이 붉은색이 난다고 해서 홍합 혹은 맛이 슴슴해서 담채라고도 불리우는 섭조개.

섭조개구이는 비린 맛과 여러가지 양념재료의 고유한 맛으로 하여 사람들이 즐겨 찾는 료리들중의 하나이다.

섭조개에는 비타민D와 리진, 로이신과 같은 필수아미노산, 여러가지 광물질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들이 풍부하다.

섭조개구이를 만드는 방법에는 조가비채로 적쇠에 놓고 굽는 방법과 섭조개살을 꼬치에 꽂아 굽는 방법, 불고기판에 올려놓고 굽는 방법 등이 있다.

❖ 음식감 2명분(g)

섭조개	500
참기름	10
후추가루	3
파	10
마늘	10
생강	10
풋고추	10
양파	10

섭조개구이를 맛있게 만들자면…

❶

깨끗이 씻은 섭조개를 찜가마에서 10분간 찐 후 살을 떼낸다.

❷

초간장이나 초고추장 혹은 겨자로 양념장을 만든다.

❸

파, 마늘, 생강, 후추가루, 참기름을 두고 20분간 재운다.

❹

양념에 재웠던 섭조개살을 풋고추, 양파와 함께 꼬치에 뀐다.

❺

숯불 또는 불판에 올려놓고 색이 변할 때까지 굽는다.

❻

구운 섭조개를 꼬치채로 그릇에 담아낸다.

분노의 웨침

《전쟁날가 불안하다!》, 《전쟁부르는 합동군사연습 당장 중단하라!》

서울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에 있는 미국대사관과 룡산 《전쟁기념관》앞에서 《2023년 반미투쟁선포 기자회견》, 《조선반도전쟁위기해소, 한미련합군사연습중단촉구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군사동맹강화에 첨병이 되겠다고 날뛰며 전쟁연습, 굴욕외교에 빠져있는 윤석열을 거대한 초불항쟁으로 심판하자.》, 《윤석열을 몰아내고 평화세상, 민중세상을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남조선 각지에서 끊임없이 전개된 740여개의 로동, 정당, 종교단체들의 시위투쟁에서 참가자들은 《전쟁부르는 한미련합훈련 중단하라!》, 《대북핵선제타격 한미전쟁연습 중단하라!》등의 구호를 웨치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글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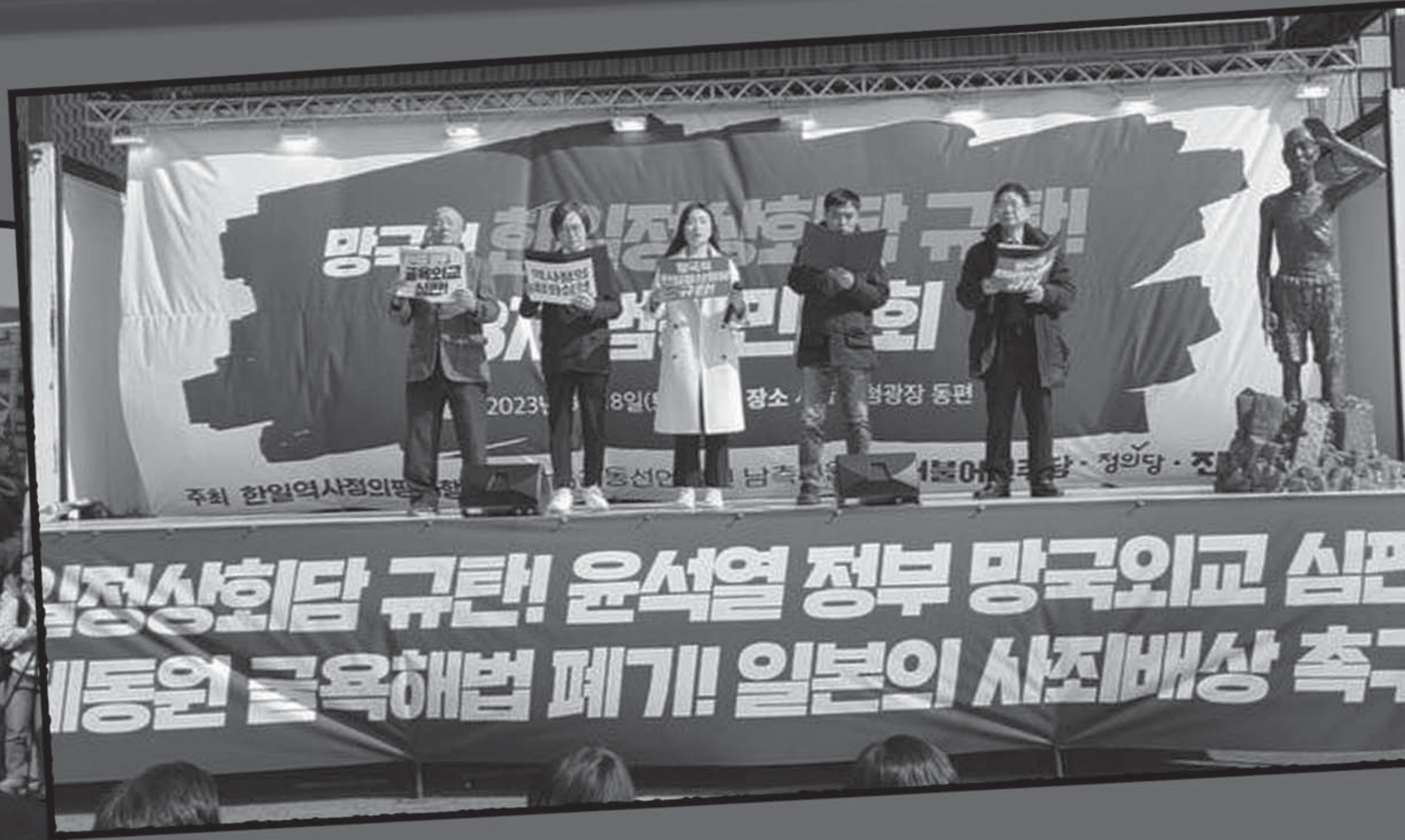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공격적인 한미연합상륙훈련 중단하라

PEACE

전 쟁 연 습 중 단
윤석열 정권심판!
이대로는 살수없다

분노의 웨침

《친미, 친일굴욕외교로 대결과 전쟁을 택한 윤석열을 심판하라!》



미국과 일본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사대매국행위가 도를 넘어서고있다.

지난 3월 일본으로 건너가 우리 민족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왜나라우두머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과거사문제를 덮어버리고 재침의 길을 열어준 윤석열역적패당은 4월에는 미국에 찾아가 상전과 머리를 맞대고 《워싱톤선언》과 《공동성명》이라는것을 조작발표함으로써 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특등역도로서의 본색을 낱낱이 드러냈다.

굴욕과 굴종으로 스스로 재앙을 몰아오는 윤석열역적패당의 미국, 일본행각은 지금 남조선 각계층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서울에서는 2만여명의 로동자, 농민, 녀성, 청년들이 《윤석열정권심판》집회, 《굴욕외교규탄 4차범국민대회》 등을 열고 윤석열역적패당이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책임을 면책하는 굴욕적친일매국외교를 진행했다.》고 폭로하고 《한일정상회담은 원천무효이다.》, 《과거사반성도 듣지 못하는 굴욕외교를 이어나가며 동북아시아평화를 위협하는 외교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들을 열고 《한미의 확장억제로는 전쟁을 막을수 없고 한반도를 국제분쟁의 복판으로 밀어넣을뿐》이라고 신랄히 폭로하며 《미국의 패권전략 선봉대 윤석열을 심판하자!》, 《전쟁먹구름 몰아오는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웨치며 반윤석열투쟁을 더욱 고조시켜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방미 성과
전쟁 먹구름 몰고오는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택한
기자회견
POLICE

윤석열정권
굴종외교
규탄한다!

미국 패권전략 선봉대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주권, 국익 내주고
전쟁위기 자처

국방부
망국 열차
윤석열정권
굴종외교
규탄한다!
전쟁 먹구름 몰고오는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주권, 국익 내주고
전쟁위기 자처
윤석열정권 심판!
미국 패권전략 선봉대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평화보다 대결과 전쟁 택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 기자회견

대웅전과 만궁당, 심검당

불이문

력사유적

석 왕 사

대웅전의 내부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에 위치하고있는 석왕사는 고려말기인 1386년에 처음으로 응진전이 세워지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큰 규모로 확장된 불교사원이다.

석왕사는 50여채의 웅장한 건물들이 서로 처마를 맞대고 건축군을 이루고있어 하나의 마을을 방불케 하였으며 그 규모는 공화국의 사찰건축유산들가운데서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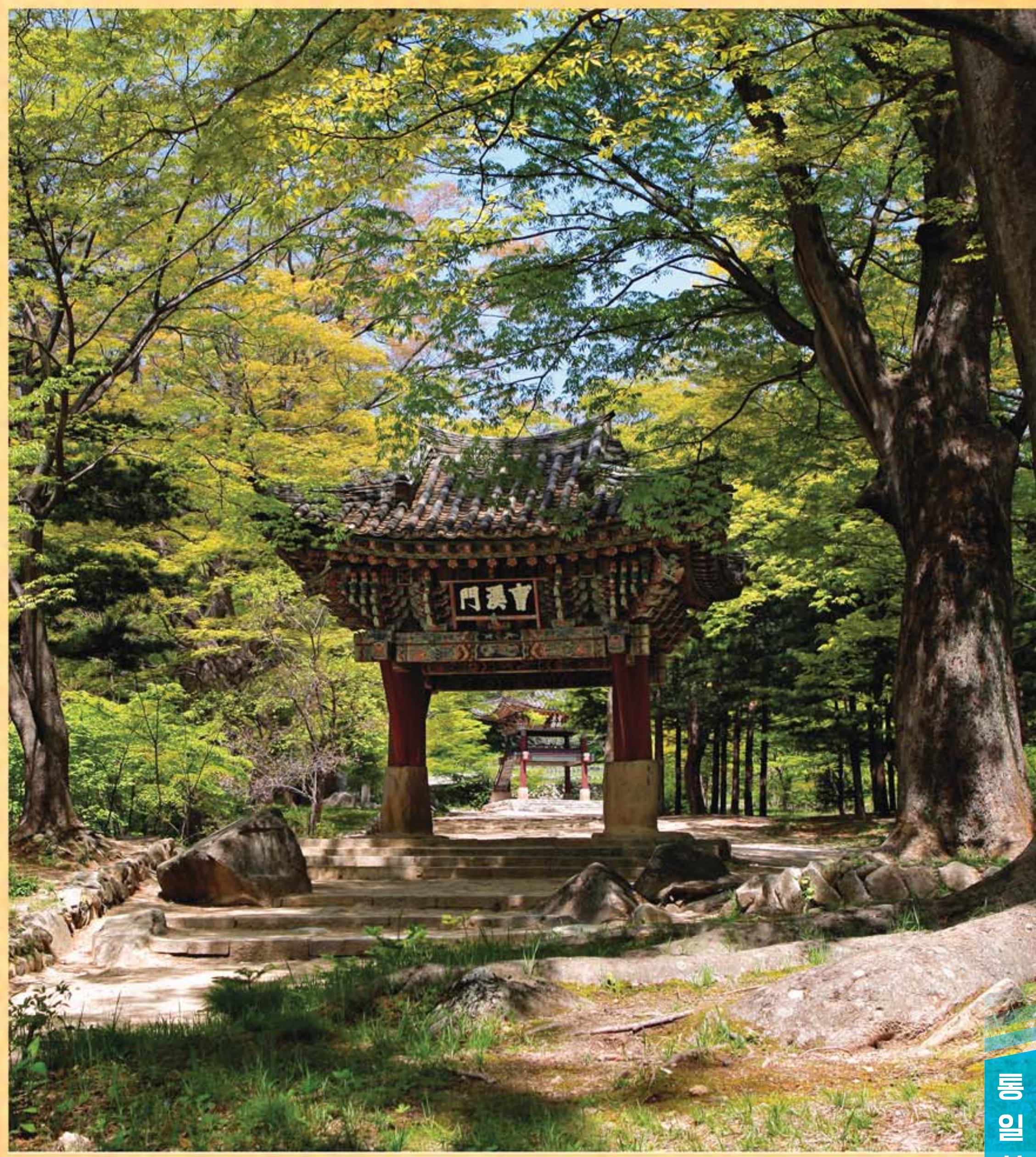
그러나 석왕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거의 전부가 불타고 파괴되였다.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석왕사의 대웅전과 심검당, 응진전을 비롯한 건물들이 력사주의적원칙에 맞게 개건 및 복원되였다.

석왕사가 개건 및 복원되여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 그리고 선조들이 지녔던 우수한 건축술과 예술적재능을 더 잘 보여줄수 있게 되였다.

글 장윤정

설성동루



조계문

낸곳: 통일화보사　주소: 평양시 중구역 련화2동
사서함: 조선 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ㄱ-1594ㄷ

루계 415

ISSN2305 8544